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4/27~2026/05/03]

2026.05.04

## [로봇] 조용히 진행되는 양산 준비들

- 두산로보틱스에 더해지는 엔비디아 효과. 삼성은 어닝콜에서 "로봇 선도업체 추격 기반 마련" 언급
- 일본 공작기계 전년비 +28%. 데이터센터와 '휴머노이드' 부품 수요가 견인
- 1X와 Figure AI의 양산 능력 공개. 샤오미도 4년만에 휴머노이드 업데이트

## [방산] 하반기의 주목할 포인트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실행

- 한화, 캐나다와 미국에서 K-9 자주포 현지 양산 계획 공개
- 이라크 총리 지명.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표명. 이라크 정치 지형 안정화
- 결국 루마니아 장갑차는 SAFE 자금 활용해 독일 링스 장갑차를 구매

## [조선] CPSP 입찰 수정 기한 종료 - 한화의 막판 공세

- 캐나다 잠수함 입찰 수정 마감에 한화그룹 막판 협력 공세
- IMO MEPC 84 개최.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기각되지 않고 협상의 틀로 유지됨
- 한화오션, 인천 연평도 근해에 4.1조 투자 해상풍력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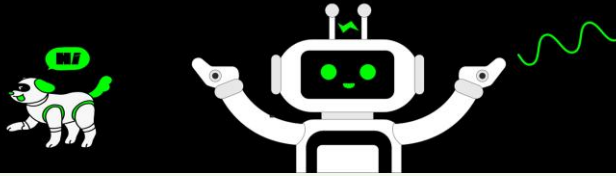
## [항공] 항공유 부담 해소 시점

- 항공유 폭등 두달째 감편·비운항 '컨틴전시 플랜' 계속
- UAE 이란 전쟁 후 폐쇄했던 하늘길 열어, 영공 전역 항공운항 전면 재개
- 中 유가 급등으로 노동절 대목에도 항공편 취소율 2배 증가

## [해운] 美 이란 제재 영향

- 美 봉쇄로 이란 원유 저장 여력 소진, 이란 결국 '원유 감산' 돌입
- UAE OPEC 탈퇴 선언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해운업계 비용 리스크 확대
- HMM 노사 부산이전 합의, 북항 랜드마크급 사옥 건립

#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 Weekly Keyword

### 조용히 진행되는 양산 준비들

지난 주 테슬라에 이어, Figure AI와 1X의 로봇 양산 동향도 업데이트. 모두 약 1만대 규모의 CAPA를 구축하고 양산 진행 중. 단순 기대감에서 조용히 실제 양산 성과들을 확인하기 시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4)

### [조용히 진행되는 양산 준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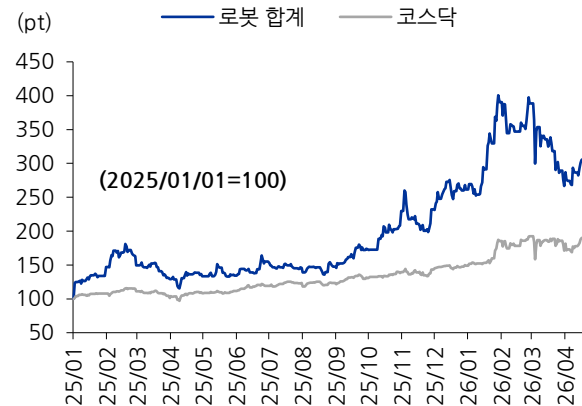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양산 관련 업데이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 지난 주에는 Figure AI와 1X Technologies의 양산 규모가 공개됨.
- Figure AI는 현재까지 약 350대의 로봇을 생산. 과거 하루에 1대를 만들던 라인이 이제는 시간당 한대까지 생산 가능(연 8,760대). 동사의 지난 주 로봇 생산 목표는 55대 었음.
- 1X Technologies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공장에서 연 1만대의 양산 CAPA를 구축한 상태. 작년 NEO 출시 5일만에 1만대 주문을 마감. 2027년까지 10만대 규모 CAPA 구축할 계획. 모터, 배터리, 구조물, 변속 시스템, 부품, 센서 등 핵심 구성 요소를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조하는 수직적 통합을 추구하는 점에도 주목.
-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도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 중인데, 강력한 수요처로 휴머노이드 부품용 공작기계 수요를 언급 중.

### Key Chart: 1X의 양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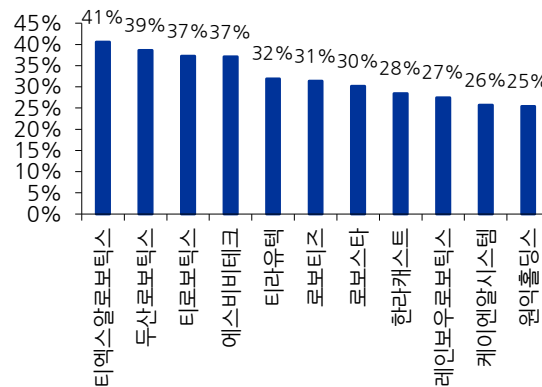


자료: 1X, 유진투자증권

##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 로봇 주요 뉴스(04/27~05/03)

###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두산로보틱스, 1분기 121억 적자. 매출은 190% 증가
- 두산로보틱스, 엔비디아와 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 [휴머노이드]

- 엑스와이지, 양팔형 세미 휴머노이드 '듀스' 공개
- 현대차, '양팔형 로봇 플랫폼' 개발중

### [부품/SW/기타]

- 삼성전자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레인보우로보틱스, 판교서 SW 인재 확보전
-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AVP본부로 이관
- LG전자,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에 12% 급등
- 구광모 회장, 허서비스 CEO와 AI 협력방안 논의
- '웨어러블 로봇' 코스모로보틱스, 청약 경쟁률 2013대 1
- 한국피아이엠, AI 데이터센터 냉각 소재 개발 완료

### [Global]

- 日 3월 공작기계 수주 +28%. 데이터센터 성장 견인
- 화낙, 실적 호조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강세
- 日 소프트뱅크, AI·로봇 신설사 美 상장 추진
-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하루 1대 생산에서 시간당 1대로
- 1X, 미국 공장 가동. "연내 가정용 휴머노이드 1만대 생산"
- 메타, 로봇 AI 스타트업 'ARI' 인수
- 테라라인 로봇 사업부문, 올해 1분기 전년대비 32% 성장
- 세플러, 32년까지 핵심군 휴머노이드 1,000대 이상 도입
- 中 샤오미, 4년만에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 유니트리, 4,290달러 듀얼암 휴머노이드 출시





## Weekly Keyword

### 하반기의 주목할 포인트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트럼프가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명령.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미국의 지속적인 자주국방 요구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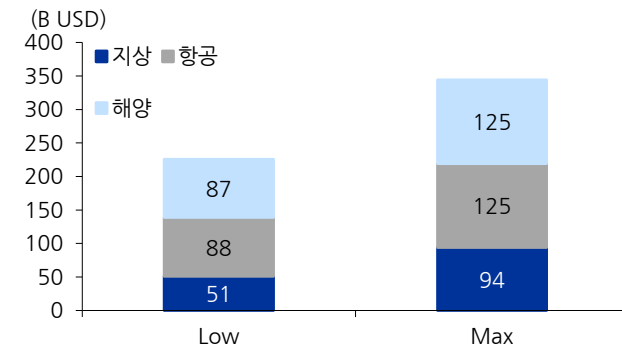


##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72)

### [하반기의 주목할 포인트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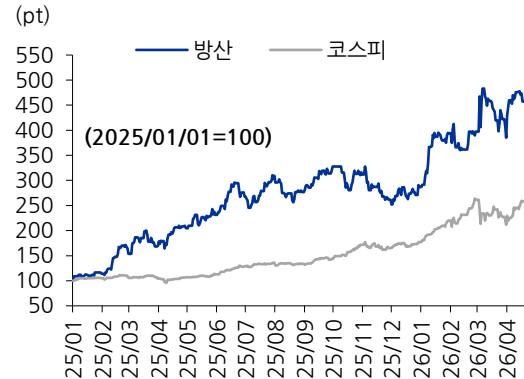
- 중동 사태 이후에도 방산 분야에 우호적인 상황은 지속될 것.
-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천명에 대한 철수를 명령함. 이탈리아와 스페인 철수도 언급.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 작년부터 NSS, NDS에서 자주국방을 요구하고 해외 주둔에 대한 변경 검토를 진행해왔기 때문. 하반기에도 미국의 NATO 탈퇴 현실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수 밖에 없을 것. 실제로 NATO 탈퇴, 실질적으로 유럽 내 미군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나(\*NDAA 2026에서 45일 이상 유럽 주둔 미군을 76,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이 안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 축적은 지정학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 Key Chart: 유럽 내 미군 주둔 철수 시 대체 전력 확보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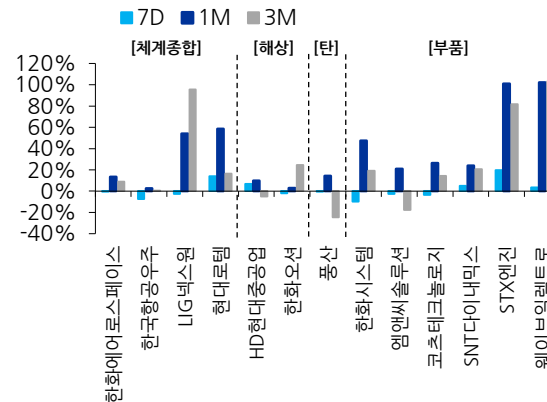


자료: ISS, 유진투자증권

##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verse

## 방산 주요 뉴스(04/27~05/03)

### [수주/계약]

- 사우디, CTM-500과 KSS-III 잠수함 도입 협상 진전
- 현대위아, 2,600억 규모 말레이 105mm 견인포 입찰
- 인도, 한국 K30 비호 방공무기 사업 재추진

###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캐나다 군용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
- 한화에어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국산화 박차
- 한화, 캐나다 CPSP 수주 위해 K9 자주포 현지 생산 카드
- 한화, 미 알라배마에서 K9 자주포 생산 계획
- 현대로템, K2 전차 현지 조립 하도급 계약 체결
- 현대로템, K-2PL 2028년 4분기에 폴란드 배치
- 신익현 UG D&A 대표 "UAE에 독립법인 세운다"
- KAI, 美 벨텍스트론과 차세대 고속기동헬기 개발 협력
- KF-21 전력화 완료 2036년으로 4년 늦춘다

### [기타]

- 기획처 "K-방산, 드론·로봇 등 첨단 전력에 예산 투입"
- '대북 킬체인'의 눈' 軍 경찰위성 5기 이달말 전력화

### [글로벌]

- 루마니아, 링스 장갑차 298대 중 232대를 SAFE로 조달
- 이라크 대통령, 새 총리로 사업가 출신 알자이디 지명
- 미 해군 MQ-25 스텔레이 함재 드론, 첫 시험 비행 완료
- 美 스타트업 드론, 일본서 만든다. 미일 방산협력 1호
- 미쓰비시전기, 美 RTX와 미사일 공동 생산 협의
- 다카이치, 안보3문서에 '군사력+기술력' 강화 담는다
- 라인메탈, 독일 연방군 3억 유로 자폭 드론 수주



Weekly Keyword

CPSP 입찰 수정 기한 종료 - 한화의 막판 공세

캐나다 CPSP 입찰 수정 기한이 종료됨. 독일의 추가 오퍼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한화는 막판 총공세. 군용/산업용 차량과 K-9 등 지상방산의 캐나다 현지 양산 플랜을 공유.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2)

[CPSP 입찰 수정 기한 종료 - 한화의 막판 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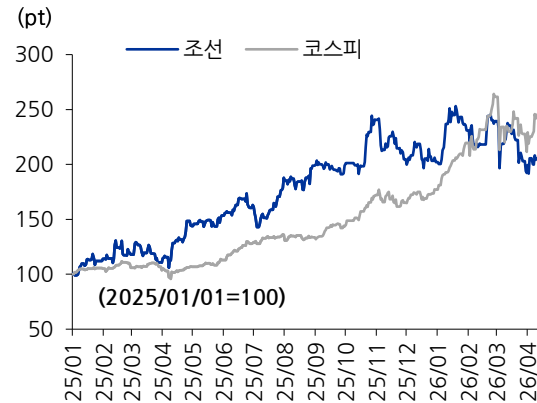
- 4월 10일 캐나다 CPSP 입찰 제안서 수정 요청이 29일부로 마감됨. 본 수정은 2월에 공개된 캐나다 DIS(국방산업전략)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 DIS에서는 해외에서 무기를 조달할 경우에는 캐나다 경제 재투자자와 운용·유지의 주권적 통제를 요구.
- 결국, 캐나다 잠수함의 평가 잣대는 경제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수정 요청 이후, 공개된 내용으로는 한국이 제시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매력적. 새로 공개된 추가 협업 내용은 (1) 한화-앨버타주 포괄적 MOU 체결 (2) APMA-한화 군용/산업용 차량 현지 생산 MOU(한화의 캐나다 K-9 등 현지 생산 계획) (3) 한화오션-가노바스 코사빠어빙조선소와 협력 확대 등.

Key Chart: 캐나다 APMA-한화 MOU 체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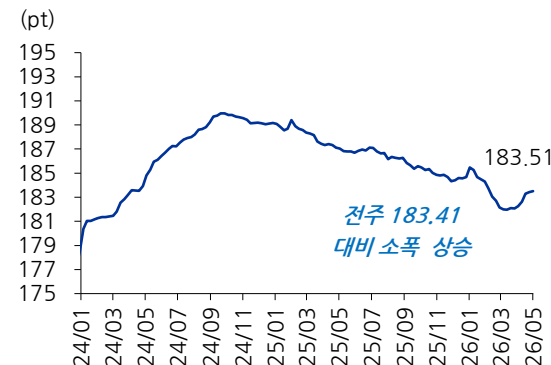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v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4/27~05/03)

[상선/해양]

- KSS해운, HD현대중 90K급 VLGC 3척 신조 계약 체결
- HJ중공업 컨테이너선 \$120.6M 2척 수주
- HD현대마린엔진, 中조선소 1,068억 선박엔진 공급계약
- 연평도에 '평화의 바람'. 한화오션, 4조 해상풍력단지 추진

[특수선]

- 美 무인수상정 노리는 한화. 해군-아마존 출신 영업
- HD현대중공업, 10억달러 규모 덴마크 호위함 입찰
- 한화오션에 영업비밀 넘긴 방사청 '논란'
- 해군-방사청, 울산급 4번함 제주함 진수식
- 한화, 캐나다 군용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
- 한화오션-LIG D&A, 加 마젤란과 'CPSP 사업 협력' MOU

[기타]

- 삼성중, 계약취소 수에즈막스 2척으로 '큰 수익'
- 정기선 회장, 美 선급협회 수장과 '조선업 미래 재편' 논의
- 삼성중, 페트로베트남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MOU
- HD현대 이어 삼성중도 '로봇개 투입' 검토

[글로벌]

- EU, 3월 러시아산 LNG 수입 '역대 최대'
- IMO 사무총장, 해운 탈탄소화 협약 체결 촉구
-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1단계 조치가 발효
- 사우디 아람코, 시설 손상 탓 5월까지 LPG 선적 중단
- 바르질라 1Q 실적 발표에서 엔진 수요 긍정적 전망
- 캐나다 50억CAD 규모 신형 코르벳 20척 조달 추진
- 인도, "54억 달러 투입해 62척 신조 발주"

Weekly Keyword

항공유 부담 해소시점

높은 항공유 가격 안정화는 중동 수출 회복과 소비자 재고 복구  
확인되어야 가능. 단순 휴전만으로는 유류할증료 부담이 완화되기  
어려우며, 중장기 여객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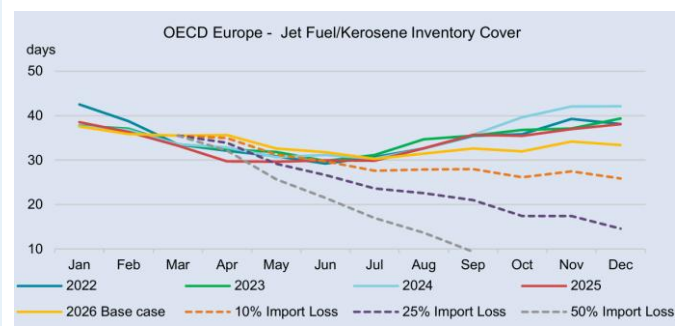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2)

[항공유 부담 해소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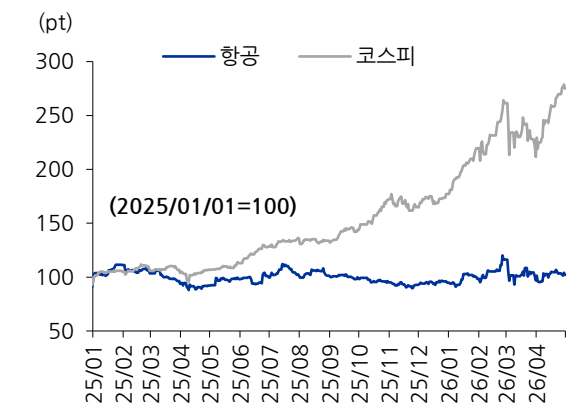
- 항공유 가격은 190달러/배럴로 높은 수준 지속 중. 이는 1) 중동 원유 선적 차질 2) 아시아 정유사 원료 조달 병목 3) 낮은 소비자 재고가 겹치며 항공유 크랙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영향.
- 가격 안정화의 핵심은 중동 수출 회복과 소비자 재고 복구. IEA에 따르면 유럽 항공유 재고 보유일수가 23일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항공편 결항 및 수요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 유럽이 미국산 항공유 수입을 최대치로 늘린다고 가정해도 중동 차질분의 절반 수준만 대체 가능.
- 따라서 단순 휴전이나 WTI 안정화만으로는 유류할증료 부담이 즉각 완화되기 어려움. 2분기 여객 수요에는 높은 유류할증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중동사태가 종식되더라도 3분기까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운항 축소 없이 대응 중인 대한항공의 일드 방어력에 주목.

Key Chart: 향후 유럽 항공유 재고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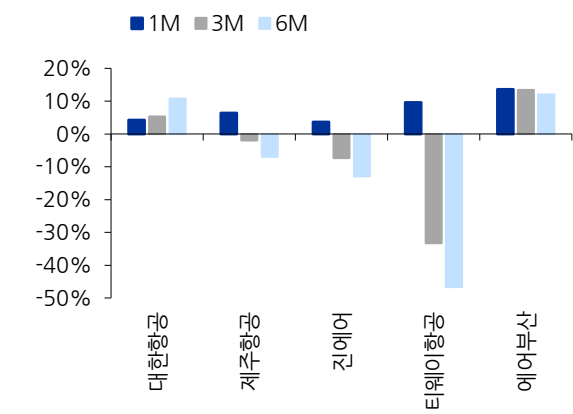


자료: IEA,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vise

항공 주요 뉴스(04/27~05/03)

[여객/화물]

- 항공유 폭등 두 달째, 감편·비운항 컨틴전시 플랜 계속
- 5/1부터 유류할증료 2배, 저수익 노선 감편 속속 확대
- “항공로 더 오르기 전에”...日 골든위크 맞아 출국 인파 북적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영국 스카이트랙스 5성 항공사 6년 연속 선정
- 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신규 취항, 동남아 허브 공략
- 파라타항공, 5월 연휴 맞춰 6일간 유류할증료 인상분 동결
- 이스타항공 부산-알마티 첫 취항, 중앙아시아 노선 확대
- 하이즈항공, 보잉 자회사 BTC와 395억 규모 공급 계약
- 에어로케이항공, 청주-베이징, 상하이 등 4개 노선 확보

[기타]

- 항공권 가격 또 오르나, 공항이용료 50% 인상 추진

[글로벌]

- 中 유가 급등으로 노동절 연휴 해외 항공편 취소율 2배 증가
- 美 스피릿항공 폐업 절차 개시, 전체 항공편 취소
- UAE 이란 전쟁 후 폐쇄했던 하늘길 열려, 항공편 정상 운항
- 美 재무부,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타국 제재
- 美 저비용항공사들, 연방정부에 25억달러 지원 요청
- 인도, ‘중동전에 휘청’ 항공업계 대출 보증 등 추가 지원





Weekly Keyword

美 이란 제재 영향

미국은 'Economic Fury'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확대. 이에 이란 원유 수출 및 저장 여력 빠르게 감소. 제재 압박은 이란의 협상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5)

[美 이란 제재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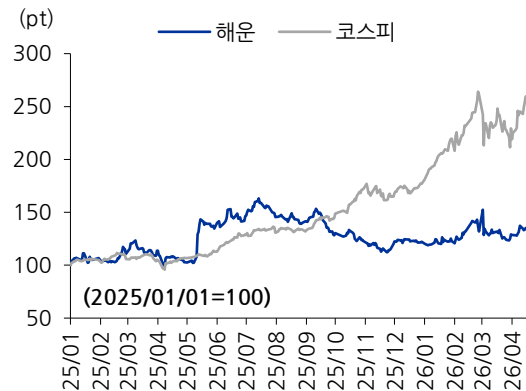
- 미국은 'Economic Fury'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제재를 확대 중. OFAC은 4/28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운업계의 이란 우회 결재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있는 상황. 앞서 미국은 이란산 원유 거래와 관련된 중국 그림자 선단 선박 및 해운사 40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란의 석유 수출량 차단을 강화.
- 미국의 압박은 이란 원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5/2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결국 일부 감산에 나선 상황. 단기적으로는 운임과 전쟁보험료 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나, 미국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란의 협상 복귀 및 호르무즈 통행 재개 가능성도 증가할 전망.

Key Chart: 미국 이란 제재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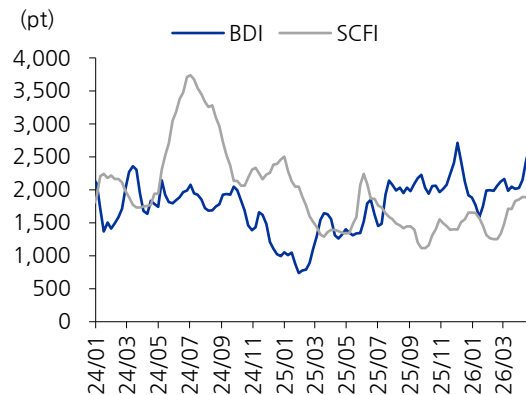
구분	내용
4/13	트럼프, 이란 항만 출입 선박 역봉쇄 시행 발표
4/24	OFAC, 이란산 원유를 구매·운송하는 중국 그림자 선단 선박 및 선주사 약 40 개 제재 발표
4/28	OFAC,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급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
5/1	이란의 원유 판매대금, 환전 및 이동을 돕는 외환거래소 및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제재 발표
5/2	미국 고강도 해상 봉쇄 조치 지속, 이란 원유 감산 돌입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4/27~05/03)

[벌크선]

- 양쯔강해양개발, 탱커 및 벌크선 10척 신조 발주
- 팬오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안정적으로 유지

[탱커/가스선]

- UAE OPEC 탈퇴로 유가 변동성 및 해운 리스크 확대
- KSS해운 VLGC 3척 투자 결정, 가스선 사업 경쟁력 강화
- KSS해운, 중동 BGN·일본 직시사와 7,000억 규모 장기계약

[컨테이너선]

- HMM 노사 부산이전 합의, 북항 랜드마크급 사옥 건립
- Maersk, 한국 노선에 긴급 유류할증료 35% 인상
- 고려해운, 수익 악화에도 25년 1,500억원 현금 배당
- 유류할증료 도입으로 동남아항로 운임 한달새 20% 상승
- 파나마 운하 통행 경매 슬롯 가격 2배 이상 급등
- 美 항소법원, FMC의 에버그린 지체료 판결 지지
- 글로벌 30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성장세 지속

[기타]

- 美 재무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금지 경고발령
- 美 봉쇄로 이란 원유 저장 여력 소진, 추가 감산 압력 확대
- EU 20척 제재 패키지 확대, 선박 26척 추가 지정
- 카타르 LNG 수출, 2028년 이후 정상 수준 회복 전망
- 현대글로벌비스, 세계 최대 규모 PCTC 도입
- 해수부·해진공, 선사 경영난 해소 유동성 지원 패키지 시행